

무풍 저온저장고 증축완료

(산지유통센터)

저장규모 200→800여 톤 늘어... 출하 어려움 해소·품질관리 기여 기대

무주군은 무풍 산지유통센터(무풍면 삼도봉로) 저온저장고의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반딧불영농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농협 등 관계자, 그리고 무풍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며 준공을 자축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이종현 과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무풍면의 사과 생산량은 연간 6,650여 톤으로 우리 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해 저온저장고의 저장용량이 부족해 그동안 품질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존 저장고 시설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200여 톤이었는데 증축을 통해 이제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 1,000여 톤"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반딧불사과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무풍 산지유통센터 저장고 증축공사(2017.5.~11.)에는 사업비 19억800만원(군비)이 투입됐으며 신축된 998.11㎡의 저장고는 사과 800여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다.

황정수 군수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를 할 것"이라며 "제대로 틀을 갖춰 나가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모두 인정받는 맛있고 품질 좋고 안전한 반딧불사과가 유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무풍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난 2009년 조성돼 사과선별시스템과 포장기, 선별기 등을 갖추고 그동안 무풍면에서 생산된 사과의 선별과 포장, 유통은 물론, 육수수와 양파 등의 지역특산물 유통에도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번 저온저장고 증축으로 기능이 확대되면서 규모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농산물 판매·유통 주체로서 역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성수, 무주 대중교통 체계개편 촉구

군의회 5분발언...군내버스 공영제·행복택시제 도입 제안



이성수 의원

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무주군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천원버스(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버스 승하차장까지 4km를 걸어야 버스를 타고 학교나 병원에 갈 수 있는 마을이

있고, 일부는 손님 한 명 없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도 있다"며 현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대안으로 군내버스 공영제와 행복택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5개 읍면 연계)대형버스를 활용한 1개 주요노선 신설 ▲(부남면, 무풍 덕지, 설천 구천동 등)미니버스를 활용한 10여개 노선 신설 ▲(벽지마을)천원 행복택시 도입을 제시했다. 소요되는 재원은 무료 순환버스 및 노인복지관 운행차량 예산과 무진장 여객 지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장수군은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농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인해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업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 한다고 밝혔다.

군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매립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마을 단위 폐자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설치사업은 2018년도 7개 마을에 대해 올해 1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미래 만들어가는 진안 정천면

진안군 정천면(면장 임진숙)은 민·관이 하나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잘 사는 정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정천면 봉화리 일원에 총 4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또한 정천면은 높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주민과 함께 활발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천면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의 참여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실적을 높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범죄예방 결의대회 개최

무주군 자율방범연합회가 주최·주관한 2017 무주군 범죄예방 결의대회가 지난 18일 무주군 설천면 구천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부의장, 백경태 도의원, 무주경찰서 내영민 서장을 비롯한 전북자율방범연합회 유성남 회장과 무주군 6개 읍면 자율방범대원과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무풍면 자율방범대 김정규 대원과 적상면자율방범대 한상희 대원이 지역안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무풍면자율방범대 오명석 대원과 구천동자율방범대 이현미 대원, 부남면자율방범대 김철희 대원이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무주군자율방범연합회 구자원 대장은 "말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지역사랑의 마음을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쏟아보자"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등 화합행사에 함께 하며 친목을 다진 대원들은 마을방범과 범죄예방, 주민보호, 청소년 선도도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출산장려사업 지원 확대키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등... 출산 축하용품도

진안군은 지난 17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등 지원 범위를 폭 넓게 확대키로 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하였으나 지난 9월 29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가정일지라도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산장려금 신청인의 범위도 부모 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확대했다.

현재 진안군은 산모 출생 시 첫째 220만원, 둘째 22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도 소득과 상관 없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종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4인기준 13만7,073원 이하 납부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자녀수에 따라 30~100만원 정도를 본인 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

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해준다.

진안군 군수는 "출산 가정에 필요한 목욕용품, 체온계, 방수커버, 베개, 내복 등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출산 가정의 제반 가계비용 부담을 덜어 실질적으로 출산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진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가야 조사정비·복원 기초연구용역 보고회

장수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예정인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수가야 조사정비, 복원 기초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수군청 실, 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 등이 참석했고, 이번 기초연구 용역을 맡은 송화섭 중앙대학교 교수가 보고자를 맡아 장수가야 유적별 (고분, 제철, 봉수, 산성) 계획, 교육 및 홍보방안 등 장수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장수군은 240기의 왕릉급 고총고분과 70개소의 제철유적, 21개소의 봉수유적, 10여 개소의 산성유적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가야문화유산들의 보존과 활용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기초연구용역 총괄을 맡은 중앙대학

송화섭 교수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면밀한 분석과 의견 청취를 통해 장수가야의 세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비산면지발생사업장 점검

진안군은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면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관내 비산면지발생 건설공사현장 및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내 타 지자체와 합동으로 비산면지 발생신고 대상(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 및 총연장 200m이상의 관로공사) 중 대규모로 시행 중인 공사현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숲가꾸기사업도 평가 '최우수'

진안군은 2017년 숲가꾸기사업 전복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진안군의 숲가꾸기사업은 산주와 사업시행자,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갖고 현장과 기술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숲가꾸기는 인공 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나무의 연령(연급)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숲야베기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숲가꾸기사업은 경제적으로 우량한

목재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산소 생성, 맑은 물 공급, 산사태 피해방지 등 수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도내 최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진안군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에는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25억을 투입 1,940ha를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신타포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